



**WALKING  
ON THE STREET**



**GENTLEMEN'S  
HOLIDAY**

+  
THE  
SHINSEGAE  
10

TRAVEL ISSUE  
**DAZZLING  
EARTH**

BLUE FANTASY

**NICHE PERFUME**

*and  
much more*



## 사진작가 구본창 애뜻한 눈으로 시간의 흔적을 좇다

비누는 말없이 거기 있었을 뿐이다. 그때 누군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누의 숙명을 안쓰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살아간다는 것이 곧 죽어가는 것인 비누의 숙명.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거품으로 사라져 갔던 그것을 사진작가 구본창이 '일상의 보석'으로 길어 올렸다. 신세계 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 피손에서 구 작가의 비누 연작을 만날 수 있다.

집은 사람을 닮는다. 분당 이매동 비탈길에 수줍게 숨어있는 구본창 작가의 집은 미소조차 수줍어서 한꺼번에 토해내지 못하는 구본창 작가의 표정과 영락없이 닮았다. 젊은 시절 셀프 포트레이트를 찍을 때 지었던 결기 어린 눈빛, 어딘가로 정처 없이 뛰어가고 싶어 하던 욕망은 어느덧 느슨하게 풀어져 있다. 휴일 오후, 손님을 위해 활짝 열어놓은 작업실 대문처럼.

그는 30여 년간 쉽게 열지 않았던 마음의 빗장도 천천히 열어두기 시작했다. 신당동의 작은 일본식 가옥에서 살던 어린 시절부터 자유로운 공기를 쐬기 위해 떠난 독일 유학 시절, 한국에 정착해 사진작가로 자리를 잡기까지의 이야기를 담백한 어투로 정리한 에세이 <공명의 시간을 담다>(컬처그라피)는, 끝내 여며 두기만 했던 마음의 풍경을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 풀어내고 싶다는 작가의 의식적인 선언처럼 읽히기도 한다.

### 수집품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구본창 작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지는 곳과 일하는 곳을 분리했다. 워낙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잠을 청하는 일상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런 그가 잠잘 곳을 근처로 이전하고 작은 공사를 시작한 것이 몇 주 전의 일이다. 침대가 있는 방을 스튜디오 밖으로 내보낸 것은 터키 여행 때 찾았던 오르한 파묵의 순수박물관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오르한 파묵이 소설 속 추억의 재료를 모아 만든 순수박물관은 주인공 휘센이 피우던 담배꽂초부터 여행 다닐 때 들었던 가방까지 손때 묻은 많은 것들을 3층집 벽면 가득 모아놓은 공간이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공간을 내주면 여태껏 수집해온 물건들을 멋지게 전시할 수 있을 텐데.” 꾸밈처럼 내뱉은 말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함께 순수박물관을 찾았던 선배 작가 강운구였다. “왜 딴 데 나가서 하려고 해? 당신 작업실 한쪽에 만들면 되잖아.” 퍼뜩 정신이 들었다.

둘러보니 그의 작업실은 이미 곳곳이 박물관이다. 서울올림픽 카퍼레이드가 끝난 후 창고에 처박힐 뻔한 시계를 주위 암전히 벽에 걸어 놓았고, 일본의 한 수집가에게 얻은 컴퓨터보다 큰 30, 40년대식 계산기를 스튜디오 한쪽에 귀중히 모셔 두기도 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나마 값비싼 물건 축에 속한다. 구본창 작가가 모은 수집품 중에는 구둑방 장인이 치수를 재기 위해 사용했던 족상부터 때가 잔뜩 낀 비행기 모형이나 잘린 인형 팔 같은 것도 있다. 심지어 그가 어깨에 비스듬히 메고 온 정사각형 가방에도 세월의 더께가 잔뜩 앉아있다. 지퍼 부분에 알맞게 터진 실밥이 조형적미를 읊조려 준다. 그 물건을 아끼면서 살아온 구본창 작가의 시간이 거기 오롯이 박제되어 있는 듯하다.

그는 실제로 몇십 년간 집요하게 시간의 뒤꽂무니를 쫓아온 사람이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저 흘러갈 뿐인 시간을 애뜻한 눈길로 부지런히 쫓아왔다. 사진가로 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 구본창이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미의식은 ‘낡은 것에 대한 매혹’이다. 시간의 때가 덕지 덕지 묻어 있어야만, 누군가 아껴 쓴 흔적이 고목 나무의 나이테처럼 박혀 있어야만 그의 눈에는 그 사물이 더욱 아름답게 살아났다. 그렇게 시간이 남기고 간 애잔한 흔적을 좇다가 어느 날 만나게 된 것이 ‘비누’라는 일상의 물건이다.

### 비누의 회화적 모양새에 눈뜨다

처음 비누가 눈에 들어온 것은 80년대 중반이다. 유학 시절 독일에 가려면 도쿄 나리타 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했는데, 그 무렵 공항 면세점에서 투명한 보라색 비누를 처음 보게 됐다. “어찌나 색이 아름답던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투명한 비누가 없었거든요. 색깔이 하도 예뻐서



1



2

1 구본창 작가가 자신의 손바닥에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비누 조각들을 예쁘게 올려놓았다.

2 7월부터 신세계백화점 피손에서 판매하는 구본창 작가의 비누 연작 시리즈. Soap 20, 2004

“  
구본창 작가는  
애뜻한 눈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 아껴 쓴 흔적이  
묻어 있어야만 사물이  
훨씬 아름답게 살아난다.  
그렇게 건져 올린 사물이  
비누다.  
”

하나둘 모으다가 어느 날 비누가 지닌 조형적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여행을 가면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씩 사용했던 비누를 버리고 오는 것이 영 마뜩치 않아서 고이 말렸다가 집까지 모셔왔다.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그것을 눈여겨본 사람은 일본의 한 출판사 사장이다. 2006년 '백자' 시리즈를 책으로 묶어 내자는 청을 받고 출판사 사장과 스튜디오에서 미팅을 했다. 그때 출판사 사장이 구 작가의 책상 서랍에 있던 비누를 발견하고 "이것도 함께 책으로 묶자"고 청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에브리데이 트레저 Everyday Treasures>라는 이름의 비누 연작이다. 7월부터 신세계 피손에서 판매하는 비누 연작 시리즈 중에는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미공개 사진도 여럿이다. 그는 하나씩 따로 있는 것도 좋지만 함께 어울려서 빛을 발하는 사진도 있는 것 같으며 "이를 위해 비누 사진 프린트를 늘 가까이 두고 서로 어울리는 비누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한다.

### 흘러가는 것을 붙잡고 싶은 욕망

구본창 작가는 본래 그런 사람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에 눈길을 주고 세상 가장 아름다운 자태로 찍어 주겠다고 호기를 부린다. 실제로 그의 필터를 거친 사물들은 전과 다른 형상을 지닌 미지의 보물이 된다. 수줍게 치맛자락을 여민 여인의 품모를 닮은 백자부터 시골 어귀에 세워진 장승처럼 비장미가 서린 사스루(마차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바퀴가 건물 모퉁이를 긁지 못하도록 설치한 프랑스 쇠말뚝), 빈 상자에 담긴 옷핀 한 조각까지 구 작가의 사진에 담긴 사물들은 모두 하나의 생명체로 되살아나 제 이야기를 웅성거리고 있다.

"어릴 적부터 쓰던 물건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어요. 우리 집에 낡은 선풍기가 한 대 있었는데, 유학 가기 전 보따리에 담아서 이젠 내 거니까 아무도 가져갈 생각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죠." 남들 같으면 상속 받을 집이나 땅 문서에 욕심을 낼 판에 구본창 작가는 낡고 때가 탄 물건에만 유독 관심을 보였던 셈이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 유학에서 막 돌아왔을 때 그가 살았던 아파트의 풍경도 결코 예사롭지 않다. "커피 필터가 하나둘 쌓이는 게 멋스러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곰팡이 슬지 않게 잘 말려 두었다가 썩어 쌓였는데, 마침 한 잡지사에서 촬영 나온 작가가 그 풍경을 사진에 멋지게 담아 주었죠."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르네 마그리트 그림을 걸어놓은 벽면 한쪽에 썩어 쌓인 커피 필터들이, 한때 그 안에서 살았던 남자의 일상을 조용히 읊조려 준다.

### 사물의 이야기를 엿듣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본창 작가는 30년 넘게 사진작가다운 눈을 장착하고 살아왔다. 독일 유학 시절,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기 위해 시작한 4칸 짜리 연작 사진 <일본간의 독백>부터 서울에서도 아웃사이더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어 이방인의 눈에 비친 서울을 기록하기 시작한 <긴 오후의 미행>,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형상화한 <열두 번의 한숨>, 박제된 곤충의 모습을 자연사박물관의 전시품처럼 기록한 <굿바이 파라다이스>, 얼굴 대신 인간의 몸에 주목한 <태초에>,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 죽음을 처음 실제적으로 돌아본 <숨> 등, 그의 작업에는 모두 작가 자신이 흘러보낸 '시간의 흔적들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 구본창 작가는 특별한 것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는 이미 거기 있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작업에 익숙하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고, 예쁘다는 칭찬을 받아본 적 없는 것들에 미의식을 한껏 불어넣어 준다. 사물의 이야기에 귀 기울

이는 그의 사진은 다분히 회화적이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서 박제된 시간의 흔적을 읽어내지만 사실 그의 사진이 잡아낸 것은 살아 있는 것을 흉내 낸 박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거처온 이야기를 속삭이는 시간의 복화술이다.

그가 요즘 새롭게 귀 기울이는 사물은 '곰돌'이다. 조선시대 백자를 복사꽃처럼 뽀얀 화면에 담아냈던 그가 요즘은 백자와는 정반대의 빛깔을 지닌 까만 곰돌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길어내고 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사연 많은 얼굴도 기록할 예정이고, 자신의 몸에 묻은 시간의 흔적을 연대기별로 분류, 기록하는 작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7월에는 프랑스 아를 페스티벌에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해 미처 알려지지 않은 한영수 선생의 사진을 세계 무대에 소개한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전시할 백자 사진과 디지털 영상도 정리해야 하고, 동강국제사진전에서 선보일 사진엽서도 부지런히 챙겨야 한다. 그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장을 인용하며 자신의 바쁜 일상을 이렇게 정리한다. "내 마음속에 서랍이 여러 개 있어서 물건을 꺼내듯 모아둔 소재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어요."

누구보다 애뜻한 눈을 가진 구본창 작가가 이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세상에 다시 불러줘야 할 이름이 지천으로 널려있기 때문이다. 사라져 가는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순이 넘은 작가는 여전히 청년처럼 뛰고 있다. 그에게 연민은 삶의 숙명이자 창작의 에너지다.



구 작가의 작업실에는 시간의 나이테를 지닌 사물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다. 이 물건들이 근사한 이유는 이들을 아끼며 살아온 작가의 마음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